

2021 추계국제학술대회

# 篆刻藝術의 歷史性和 展望

○ 일시: 2021년 10월 7일(목) 13:00 - 16:30

○ 장소: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영상회의 시스템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ZOOM US를 이용하여 인터넷 화상으로 진행함.

ZOOM US 회의 ID : 999 7768 0641

○ 주관 문화와예술연구

○ 후원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DONGBANG CULTURE UNIVERSITY

2021 문화예술콘텐츠연구소 추계국제학술대회  
篆刻藝術의 歷史性과 展望

○ 일시: 2021년 10월 7일(목) 13:00 - 16:30 ○ 장소: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영상회의 시스템  
\* ZOOM US를 이용하여 인터넷 화상으로 진행함. ZOOM US 회의 ID : 999 7768 0641

日程 및 發表順序

【제1부】 13:00-13:30

開會宣言 및 開會辭 ..... 이영철(東方文化大學院大學校 總長, 文化藝術콘텐츠연구소 所長)  
祝 辭 ..... 黃寶根(社團法人韓國篆刻協會 會長)  
倫理教育履修案內 ..... 進行: 허갑균(文化藝術콘텐츠연구소 幹事)

【제2부】 학술발표 13:30-16:00 (20분 발표, 10분 질의토론)

14:00 ○篆刻의 發生과 變遷 ..... 학술발표: 윤경숙 (윤문자조형연구소 소장)  
질의토론: 손동준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교수)

14:00 ○篆刻의 書體變遷에 관한 소고 ..... 학술발표: 이승연 (원광대학교 교수)  
질의토론: 박재복 (경동대학교 교수)

14:30 ○篆刻藝術의 世界的現況 ..... 학술발표: 川內伯豐 (日本 東洋大學文學部 專任講師)  
질의토론: 유해동 (전, 원광대학교 외래교수)

15:00 ○전각의 차이difference ..... 학술발표: 김찬호 (경희대학교 교수)  
질의토론: 장지훈 (경기대학교 교수)

15:30 ○當代 篆刻藝術의 發展 方向에 대하여 ..... 학술발표: 魏廣君 (中國國家書院 書法篆刻所 所長)  
질의토론: 민승준(중국 산둥대학교 외래교수)

16:00 ○篆刻의 傳承價値와 文化的意義 ..... 학술발표: 김희정 (상명대학교 교수)  
질의토론: 김세종 (동국대학교 교수)

【제3부】 종합토론 16:00-16:30 ..... 좌장: 권창륜(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폐회선언 및 폐회사 ..... 이영철(東方文化大學院大學校 總長, 文化藝術콘텐츠연구소 所長)

## 「篆刻 藝術의 世界的現況」 논문

유해동 (전, 원광대학교 외래교수)

현대 사회에서는 단체나 조직이 개최하는 전람회나 式典 및 행사, 간행하는 서적이나 도록 등이 當代 전각의 모습으로 널리 인지된다. 그 대표적인 존재가 항저우의 西泠印社와 베이징의 中國篆刻研究院이다. 현재 서령인사에는 503명의 사원(명예 사원 포함)이 있으며 일본인은 31명, 한국인은 6명의 해외 명예사원이 이름을 올리며, 2006년에는 서령인사의 신청에 의하여 전각문화가 "金石篆刻"으로 문화부가 정하는 國家級非物質文化遺產에 등록됐다.

중국전각연구원은 2006년에 중국예술연구원의 한 조직으로 설립됐으며, 중국전각연구원의 신청에 의하여 2009년에 "중국전각예술"을 유네스코의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단체 결사에 의해서 전개되는 예술활동을 통하여, 전각이 문화유산으로 공적 기관으로 부더 인정된 것은 그 존재 의의를 높이는 큰 성과이다.

중국전각의 풍조는 혁신파와 보수파로 갈렸고 그 차이가 현저하다.

혁신파로 꼽히는 것이 作者의 情意의 表現에 特화된 "大寫意篆刻"이다. 회화에 있어서 "대사의 "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畫理入印(畫의 이론을 응용한 전각)"의 印風으로 "意"의 강조에 特化 한다는 심미의식 아래 다양한 전개를 보여, 전각 예술의 신경지라고 할 수 있다.

보수파의 전각은 전각의 역사와 고전에 입각하여 독자적인 풍격을 확립하고 鄧石如에서 시작 된 書從印入、印從書出의 이념에 따라 "書印一致"의 높은 경지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도 공통적이다. 또 鐵心線·細朱文을 중심으로 한 精細·工整·秀麗·典雅한 作風은 서령인사 창설 이후 오랫동안 계승된 正統적이고 溫潤한 印風이며, 오늘날 계승 작가의 작품은 當代印壇에서 빛을 발하는 존재이다. 대만에서도 대륙으로부터 대만에 들어온 印人들로부터 遺風을 받아 溫潤하고 고상한 맛이 풍부한 작품이 주류이다.

일본의 전각의 주류는 全日本篆刻連盟 (1979年~、小林斗齋創設) · 日本篆刻家協會 (1985年~、梅舒適創設) · 扶桑印社 (2000年~、関正人創設)의 3단체에 소속된 전각가로 구성되며, 일본미술전람회(日展)를 비롯한 대규모 공모전에 작품 발표를 주 활동 무대로 한다. 미술관 전시 환경에 적응하는 전각 작품들은 대형화하고 5cm이상의 大印을 刻하는 것이 정착되었다. 대인이라는 형식을 활용한 線質과 氣韻의 표현이 중시되고, 대인 특유의 大膽한 奏刀가 추구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비교적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한 서일본의 주류 작가들은 梅舒適의 소탈한 印風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중국 대사의전각의 풍조를 도입한 대담한 작품을 발표하고 있다. 한편 동일본의 핵심을 담당하는 작가의 대부분은 대학의 서도 전공을 졸업하고 교육 현장에서 서도에 종사하고, 書家에게 사사한 경험을 가지는 등 書의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이 적지 않

다."「書從印入、印從書出」의 이념에 따라 "書印一致"의 경지를 의식한 作風이 전개되고 있다.

혁신·보수에 불구하고 당대의 대표 주자로 꼽히는 作風은, 독자적인 作풍이 확립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작품에서 개성의 표출은 각자가 가진 性情을 어떻게 작품에 표현하는 가라는 점에 달렸다. 이런 이념은 향후도 계승되고 발전될 것이다.

現代社会においては、団体や組織が開催する展覧会や式典・催事および刊行する書籍・図録などが、当代篆刻の姿として広く認知される。その代表的な存在が杭州の西泠印社と北京の中国篆刻研究院である。現在、西泠印社には503人の社員（名誉社員を含む）がおり、日本人は31名、韓国人は6名の海外名誉社員が名を連ね、2006年には西泠印社の申請により、篆刻文化が「金石篆刻」として文化部の定める国家級非物質文化遺産に登録された。中国篆刻研究院は2006年に中国芸術研究院の一組織として設立され、中国篆刻研究院の申請により、2009年に「中国篆刻芸術」がユネスコの「人類無形文化遺産」として登録された。団体・結社によって展開される芸術活動を通して、篆刻が文化遺産として公的機関に認定されたことは、その存在意義を高める大きな成果である。

中国における篆刻の風潮は革新派と保守派に分かれ、その相違が顕著である。

革新派に挙げられるのが、作者の情意の表現に特化した「大写意篆刻」である。画における「大写意」の概念を元とした“画理入印（画の理論を応用した篆刻）”の印風として、「意」の強調に特化するという審美意識のもと、様々な展開を見せる篆刻藝術の新境地といえる。

保守派の篆刻は、篆刻の歴史と古典に立脚しつつ独自の風格を確立するとともに、鄧石如に端を発す「書從印入、印從書出（書は印に従いて入り、印は書より出づ）」の理念に基づき“書印一致”の高い境地に達しているという点でも共通している。また、鉄心線・細朱文を主とした精細・工整・秀麗・典雅な作風は、西泠印社創設以来長年継承されている正統かつ温潤な印風であり、今日の継承作家の作品は当代印壇において光を放つ存在である。台湾でも大陸より台湾に遷った印人らの遺風を受け、温潤かつ雅味豊かな作風が主流である。

日本における篆刻の主流は、全日本篆刻連盟（1979年～、小林斗盦創設）・日本篆刻家協会（1985年～、梅舒適創設）・扶桑印社（2000年～、関正人創設）の三団体に所属する篆刻家によって構成され、日展をはじめとした大型公募展での作品発表を主な活動の舞台とする。美術館での展示環境に適應するため篆刻作品は大型化し、5センチ以上の大印を刻すことが定着した。大印という形式を活かした線質や気韻の表現が重んじられ、大印ならではの大胆な奏刀が追求されている。

そのような中で、比較的中國との交流が盛んな西日本の主流作家は、梅舒適の洒脱な印風を發展させるとともに、中國の大写意篆刻の風潮を取り入れた大胆な作品を発表している。一方、東日本の中核を担う作家の多くは、大学の書道専攻を卒業し、教育現場において書に携わるほ

か書家に師事した経験を有するなど、書の専門性に富んだ者が少なくない。「書従印入、印従書出」の理念に基づく“書印一致”の境地を意識した作風が展開されている。

革新・保守に関わらず、当代の代表格に挙げられる作風は、独自の作風が確立しているという点で共通する。作品における個性の表出は、各人の持つ性情をいかに作品に表現するかという点に懸かっている。このような理念は今後も継承され発展されていくであろう。